

별난 수행 (상)

송화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우리는 흔히 새싹이 돋는 모습과 따라서 온 햇빛에서 봄을 느낀다. 내 수행생활은 봄의 생명력처럼 왕성하지 않지만, 내 수행의 싹은 유년기의 추억 속에서 아지랑이 같이 피어오르는 듯하다.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내가 세상 구경을 하기 전부터였다. 집안 대대로 수행생활을 하던 곳이 범여사 탈사신 경남 김해 장유읍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면 한 달씩 조그만 토폰이 있는 장유읍(지금도 장유사가 되었지만)에서 지냈다.

불모산(佛母山)에 자리한 장유암(長遊庵)은 참 조용하면서도 역사가 묻어 있는 곳이다. 당시 집안 어른이기도 한 백은 스님께서 주지로 계셨는데 동생과 나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때 옛날이야기가 마냥 재미있었는데, 좀 더 철이 들고 보니 그 재미있던 옛날이야기는 부처님 말씀과 선사들의 이야기, 사찰에 얽힌 이야기였다.

동생과 방학동안 장유암에 머물 때였다.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스님께 불려갔다. 스님께서 그때 이야기 한 구절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김수로왕 왕후인 허 황후에게는 들도 없이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었다. 인도에서 가야까지 오면서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 남동생과 함께 왔는데, 누나가 가야 황후가 너무 보고 싶어 울었다. 그러다 누나가 사는 가야왕궁이 보이는 이 곳 불모산에 살면서 누나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다. 화진이와 현주도 언제까지나 함께 오래 오래 살 것 같아도 얼마 지나 떨어져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지...”

대웅전에서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

지 모를 눈물이 났고, 훗시 동생과 헤어지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하며 내가 마친 장유화상의 마음을 아는 낭 동생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그곳에서의 추억은 나의 유년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방학이면 몇 주씩 머물면서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불을 보고 참선하는 법도 배웠다. 그랜 그제 참선인 지도 몰랐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쪽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30분정도 참선을 시키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질문하시던 스님의 모습이 선하다.

난 스님일곱에 청상이 되신 친할머니의 사랑과 귀여움을 많이 받고 커운 터라 버릇 없고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유치원에 다닐 때, “할머니는 왜 신랑이 없어요? 부처님께 할아버지 보내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할머니 신랑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머니를 난처하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초상화를 할머니 방에 걸어주셨다. 난 매일같이 일어나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인사도 하고 가끔은 할머니 흉을 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젊는데 할머니는 늙었어?”라고. 사진속의 할아버지는 할머니

집안 대대로 다니던 사찰서 수행 싹 키워

할머니의 불심은 내 인생의 큰 밑거름

그때는 눈꺼풀의 무거움에 짓눌려 잠 들기도 했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또 집에서 먹던 과자생각만 나기도 했다.

아침 먹기 전에 도량을 돌며 말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을 잠재우게 했던 묵언 수행의 가르침도 무엇인지 몰랐다. 그랜 왜 그리 말을 하고 싶고 장난을 치고 싶었던지...

백은 스님께서 버릇없던 나에게 해 주신 말씀이 지금의 내 직업을 예고하고 하였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는 할머니 귀여움 다 독차지 하고 커서 나중에 크면 어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많이 어루만지고 살아야 해”라고. 어린마음에 “예”라고 대답은 잘 했다.

와 결혼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찍은 사진이었으니 삼십대 초반의 할아버지의 모습이였다.

할머니는 수행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저녁예불을 보시고 정진하시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집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새벽예불을 마치고 오시는 할머니는 가족들이 깡파봐 살짝 내방 청문을 두드리시며,

“진야, 문 열려라. 잠 꾸 밝은 우리 손녀 딸리 문 열려라.”

“누가 새벽에 오라고 했어. 나 잘 가야. 추운데 더 서 있어. 난 몰라”라며 억지를 부리고 할머니를 새벽바람에 세워두던 못된 손녀였다. 그리고 절에 할머니를 따라가면 금방 얼마 보고 싶다고 집에 가자고 하고, 또 할머니가 절에 가신다면 또

따라 나서며 때를 쓰는 좀 극성스러운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며 49재를 지내고 무덤 앞에서 우는 꿈을 꿔다. 꿈에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일어나니 눈이 퐁퐁 부어 있었다.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잘못 했어요. 다음부터 새벽에 문 잘 열어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백은 스님의 권유로 부산 초량 소림사의 어린이법회에 나가게 되었다. 늘 할머니가 외우시던 <반야심경>을 들고 자란 터라 어린이법회에 참가하는 누구보다도 빨리 반야심경을 외웠고, 수계를 받아 법명도 생겼다.

습성의 무서움인지 지금도 조금 불안하거나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땐 반야심경을 중얼거리게 된다. 할머니와 부모님께서 생활 속에 심어주시신 마음자리 찾는 좋은 씨앗인 것 같다. 마음이 힘들거나, 머리속 번뇌가 날 괴롭힐 때면 백팔배 절을 하게 된 것도 그때 그 습관에서 오는 것 같다. 요즘 게 울려져 절하는 수행을 자꾸 미루고 있지만 말이다.

20대 방황기엔 스님의 말씀을 따라 1080배를 100일간 하며 매일 <천수경>을 열 번씩, <반야심경>을 108번을 읽으며 나를 찾는 수행을 한 적도 있다. 100일 동안의 정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이 수행을 하면서 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해본 정진 수행이 나에게 남모름 힘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결혼은 또 다른 수행의 길인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 가는 신비함도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육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왔다. 마치 전생에 절에 살았는지 채식이 몸에 잘 맞고 육식을 하고 나면 탈이 나 거의 입에 대지 못한다. 그러나 남편은 육식을 좋아하고 시택어든들도 고기 요리를 즐겨드신다.

어머니가 명절에 손님들을 위해 고품을 준비하고 갈비찜을 준비할 때면 난 성질을 부리며 짜증을 많이 냈다. 난 먹지도 않는 데 이 싫은 냄새를 맡아야 하고 찜통은 옮겨야 하며 성질을 부렸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자극과 답이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중,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직인 무효 공고

- 사찰명 : 관음암
- 주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1구 78-6번지
- 주 지 : 수암(전순재)

(사)한국불교교화원 임명장 129호

위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6년 7월 12일 이후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탈종 공고

- 사찰명 : 관음암
- 주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1구 78-6번지
- 주 지 : 수암(전순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 공고

- 사찰명 : 心福寺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상가 8번지
- 주 지 : 慧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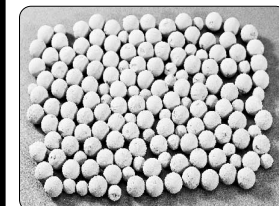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2일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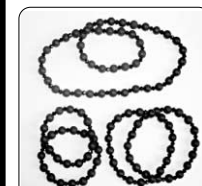
복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활력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씩씩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생명의 기!

복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깔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기운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강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영희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